

<세계사 핵심 Keyword 정리>

01	4대 문명	• <u>메소포타미아·이집트·인더스·황허</u> 문명(point! <u>통치 방식, 문자, 유물과 유적</u>)
02	중국 왕조	
	춘추전국	• 춘추 시대(<u>주의 동천</u> , 존왕양이·계절존망, 회맹, 5패), 전국 시대(약육강식·하극상, 합종연횡, 7웅) • <u>철제 농기구 사용</u> , 우경, 인구 증가와 상업 발달, 도전·포전 유통, 토지 사유화 진전 • <u>군현제 출현</u> , 개방적 풍조와 능력 중시, 상앙의 변법, <u>유가·법가·도가·묵가 등 제자백가 출현</u>
	진	• <u>시황제</u> (군현제, 몽염의 흉노 정벌, 만리장성, 분서갱유, 도량형 통일, 반량전, 소전체, 승상 이사) • 아방궁(선양), 병마용갱(兵馬俑坑), 진승·오광의 난(BC. 209 ~ , 장초 개창) → 멸망(BC. 206)
	한	• 전한(고조· <u>무제</u>) → 신(왕망) → 후한(광무제) • 고조(군국제, 흉노에 굴복), <u>무제</u> (군현제, 장건 월지 파견, 위청·곽거병의 흉노 정벌, 염·철의 전매, 군수법과 평준법, 중농역상, 한전제, 오수전), 적미의 난(신), 황건적의 난(후한) • 향거리선제(현량방정과) 실시 → <u>호족의 성장</u> • 유교의 국교화(무제, 동중서, 태학, 훈고학), 『 <u>사기</u> 』(사마천, 기전체), 제지술(채윤), 불교 전래(후한)
	위·진·남북조	• 위·촉·오, 진(사마염), 남북조, <u>북위 효문제</u> (한화정책, 군전제, 삼장제), <u>9품 중정제</u> → <u>문벌귀족</u> • <u>석굴 사원</u> , 현학·청담사상, 도교 발달, 4·6 변려체(도연명), 불도정·구마라습, 『여사잡도』(고개지)
	수	• 문제[운하 광통거(584), <u>과거제</u> (587)], 양제[운하 영제거(608), <u>대운하 완성</u> (610), 고구려 원정 실패]
	당 (618 ~ 907)	• 태종(재위 626 ~ 649)의 <u>정관의 치</u> (3성 6부, 율령, <u>균전제</u> , <u>조·용·조</u> , <u>부병제</u> , 동돌궐 정복) • 현종(재위 712 ~ 756), 천보의 쇠, <u>탈라스 전투(751)</u> , <u>안·사의 난(755)</u> → 장원제· <u>양세법·모병제</u> • 시박사(광저우, 714), 2년 3작(화북 지방 보급), 차(茶) 재배, 행(상업 조합), 비전(약속 어음) • 장안성, <u>국제적·귀족적 문화</u> (당삼채), 배화교·마니교·경교·회교 등 외래종교 수용 • 현장(『대당서역기』)·의정, 대안탐, <u>이백·두보 등 시문학 발달</u> , 『오경정의』(고종 때 완성, 공영달) • 도호부(630 ~), 기미 정책, 절도사(710), 황소의 난(875), 주전충의 난 → 5대 10국(907 ~ 979)
	송 (960 ~ 1279)	• <u>조광윤</u> (태조, 재위 960 ~ 976)의 <u>황제권 강화 정책</u> (문치주의, 재상권 제한, 전시 정례화), 사대부 • <u>전연의 맹약</u> (1004), <u>왕안석의 신법</u> (청묘법·시역법, 보갑법·보마법, 1069), 신법당 ⇔ 구법당 • 정강의 변(북송 멸망, 1127), <u>카이펑(개봉)</u> → <u>항저우(임안)</u> , 성리학(주희, 『근사록』·『사서집주』) • <u>교자·회자</u> , 행·작, 시박사 확대, 지주전호제, <u>참과벼(벼의 2기작)</u> , 창장 강 하류(최대 곡창지대) • <u>석탄 사용 보편화</u> , 제철 공업, 도시 경제 발달[<u>청명상하도</u>](장택단), 『동경몽화록』(맹원로) • 『자치통감』(사마광), 국수적·서민적 문화, <u>잡극(인형극)</u> , 공연 성행, 화악·나침반·인쇄술
	요·서하·금	• <u>요</u> (916 ~ 1125) : 아올아보기, <u>남면관·북면관</u> , 연운 16주 지배(936), 전연의 맹(형제 관계, 세폐) • <u>서하</u> (1032 ~ 1227) : 탕쿠트 족, 이원호, 칭제건원(1038), 북송과 군신관계 체결, 비단길 장악 • <u>금</u> (1115 ~ 1234) : 여진, 아구다, <u>맹안모극제·주현제</u> , <u>카이펑 함락(1126)</u> , <u>오고타이칸에 멸망</u>
	몽골 ⇨ 원 (1206 ~ 1368)	• 테무친(쿠릴타이, 칭기즈 칸, <u>천호제</u> , 호라즘· <u>서하 정복</u>), 오고타이 칸, 몽케 칸(<u>홀라구 울루스</u>) • <u>쿠빌라이 칸</u> (국호 대원, 대도 천도, 남송 정복, 역참, 몽골인 제일주의, 가마쿠라 막부 원정) • 중국식 통치 제도 채용, <u>색목인(서역인, 이란·위구르인) 중용</u> , <u>파스파 문자</u> , 흉건적의 난 • <u>교초</u> , 목화 재배, 시박사(취안저우), <u>대운하 정비</u> (항저우 ~ 대도), 강남 지방의 조세 부담 과중 • 국제적·서민적, 원국, <u>수시력</u> , 라마교, <u>랍반 사우마</u> , <u>카르피니</u> (1246), <u>마르코 폴로</u> , <u>이븐 바투타</u>
	명 (1368 ~ 1644)	• <u>홍무제</u> (재위 1368 ~ 1398, 재상제 폐지, 6부 직접 총괄, 육유 반포, 성리학 관학화, 이갑제, 어린도 책·부역황책), <u>영락제</u> (재위 1402 ~ 1424, 자금성, 베이징 천도, 내각대학사, 정화의 항해, 몽골 원정·베트남 북부 점령), 만력제(재위 1572 ~ 1582, <u>북로남왜의 화</u> , <u>장거정의 개혁과 일조편법 실시</u>) • <u>감함무역</u> (~ 무로마치 막부), <u>양명학</u> , <u>실학</u> (『본초강목』·『천공개물』), <u>마테오리치</u>
	청 (1636 ~ 1912)	• 고향제(<u>팔기제</u> , 후금 건국), 문황제(국호 ‘청’, 칭제건원), 순치제(베이징 입성, 1644), <u>강희제</u> (삼번의 난 진압, 타이완의 반청 세력 진압, <u>네르친스크 조약 체결</u> , <u>지정은제의 토대 마련</u>), 응정제(카흐타 조약, <u>군기처</u> 설치), 건륭제(최대 영토, 『사고전서』 첫 별 완성, 영국의 매카트니 사절단 입국) • 만한병용, <u>문자의 옥</u> , 『고금도서 집성』·『대의각미록』, 『 <u>홍루몽</u> 』·『 <u>유림외사</u> 』, 경극, <u>전례 문제</u> • 쓰촨 분지 개발, <u>공행 무역</u> (광저우), 지정은제, 고증학·공양학, <u>아담 살(시현력)</u> ·카스틸리오네
	명·청	• 신사, 서민의 지위 향상, 노변·항조 운동· <u>직용의 변</u> , <성세자생도>(청, 쑤저우) • 해금령, 매뉴팩처, <u>옥수수·감자</u> , 상품 작물(창장 강 하류), <u>공소·회관</u> , <u>산시·신안(회저우) 상인</u>

03	중국 근대화 운동
개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 ~ 18C 편무역 ⇨ 19C 삼각무역 제1차 아편 전쟁(1840 ~ 1842)과 난징 조약(5개 항구 개방, 홍콩 할양, 공행 폐지, 1842) 제2차 아편 전쟁(1856 ~ 1860)과 텐진(10개 항구 추가 개방, 베이징에 외국 공사관 설치, 크리스티교 포교의 자유, 1858)·베이징 조약(러시아에 연해주 할양, 텐진 개항, 1860)
태평천국운동 (1851 ~ 18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수전, 상제회(1843 ~), 멸만홍한, 대동사상, 평등사상, 반외세, 태평천국(난징, 1853) 천조전무제도, 남녀평등, 전족 금지 등 반봉건 ⇨ 단련·향용, 상승군
양무운동 (1861 ~ 18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홍장·증국번 등 향용 신사, 중체서용, 동치중흥(1861 ~ 1874), 급룡기국국 설치(1865) 청·일 전쟁(1894 ~ 1895)의 패배(시모노세키 조약)로 한계 노출
변법자강운동 (18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술변법, 강유웨이·량치차오(『변법통의』), 공양학자, 양무운동의 실패에 대한 반성, 제도국 설립 메이지 유신 모방, 입헌군주제 표방, 과거제 개혁, 신교육 실시, 상공업 육성 서태후, 위안스카이 등 보수파 관료의 반발(무술정변)로 실패 → 광서제 유폐
의화단 운동 (1899 ~ 19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련교도 계통 비밀결사, 부칭멸양, 산둥 봉기 → 텐진 입성 → 베이징 입성 선교사 살해, 교회와 철도 파괴, 베이징의 외국 공관 습격, 청 왕조의 후원 8개국 연합(영·독·러·일 등)의 베이징 점령(1900), 신축조약(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 인정, 1901)
광서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서제(재위 1874 ~ 1908), 서태후 등 보수 세력, 신군 창설, 과거제 폐지, 흥정헌법대강(1908)
신해혁명 (1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쑨원(1866 ~ 1925), 중국동맹회(도교, 1905), 삼민주의(민족·민권·민생) 주창, 청조 타도 민간 철도 국유화 조치 ⇨ 보로 운동 ⇨ 쓰촨 봉기 ⇨ 우창 신군 봉기(11월) 중화민국 수립(난징, 1912. 1월) ⇨ 청조 멸망(위안스카이, 청 황제 폐위, 1912. 2월) 위안스카이의 제제 운동(1913 ~ 1915) ⇨ 위안스카이 사후(1916) 군벌 시대 전개

04	중국의 민족 운동
신문화운동(1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두슈·후스·루쉰, 유교 비판, 백화 운동, 『신청년(新青年)』 간행(1916 ~)
21개조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의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 산둥 반도 공격 ⇨ 산둥 성에 대한 독일의 이권 요구 ⇨ 위안스카이의 수용(1915)
5·4 운동(1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리 강화 회의(1919 ~ 1920)에서 중국의 외교 실패(대중국 21개조 요구 취소, 산둥 이권 반환) 베이징 대학생 중심, 반봉건·반제국주의 운동, 베이징 정부의 베르사유 조약 조인 거부
국민혁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쑨원, 중화혁명당(1914) ⇨ 중국 국민당(1919) ⇨ 광둥 정부 수립(1921) 제1차 국·공 합작[공산당원의 국민당 입당, 군벌 타도, 쑨원 사망(1925), 1924 ~ 1927] 장제스의 북벌 개시(1926) ⇨ 난징·상하이 점령 ⇨ 상하이 반공 쿠데타(4·12 사변, 1927) 난징 국민정부 수립 ⇨ 베이징 점령 ⇨ 북벌·국민혁명의 완성(1928)
대장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제스의 공산당 토벌 작전 ⇨ 마오쩌둥의 대장정(루이진 → 옌안, 1934 ~ 1936)
일본의 침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류타오후 사건(1931) ⇨ 만주 사변(1931) ⇨ 만주국 수립(푸이, 1932) 중국 공산당(1921 ~) 지도부의 8·1 항일 구국 선언(내전 중단과 항일 공동 투쟁, 1935) 시안 사건(장쉐량, 1936) ⇨ 중·일 전쟁(1937) ⇨ 제2차 국·공 합작(1937 ~ 1944)
중국의 공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칭 평화 협정(1945) ⇨ 국·공 내전[국민당(장제스) ⇨ 공산당(마오쩌둥), 1946 ~ 1949] 공산당 승리 ⇨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1949. 10월) 토지 개혁, 산업 국유화, 개인의 이윤 추구 금지, 제1차 5개년 계획(1953 ~ 1957)
대약진 운동 (1958 ~ 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 이념 분쟁 시작(⇨ 흐루쇼프, 1956) ⇨ 소련의 원조 중단 ⇨ 인민공사 설립(1958) 경제 부흥 모색, 재래식 용광로(토법고로) 건설, 마오쩌둥 실각(⇨ 류사오치, 1959)
문화대혁명 (1966 ~ 19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약진 운동 실패 이후 마오쩌둥 노선 비판 → 류사오치와 마오쩌둥의 권력 투쟁 심화 마오쩌둥·장칭, 홍위병, 4대 척결 과제, 중국의 전통 가치와 부르주아 이념 공격 국제연합 가입(1971), 미·중 정상회담(닉슨 ~ 마오쩌둥, 1972)
덩샤오핑의 개혁과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우언라이 사망(1976. 1월) ⇨ 텐안먼 사건(4월) ⇨ 마오쩌둥 사망(9월) ⇨ 화궈펑의 4인방 숙청 덩샤오핑의 권력 장악(1978)과 실용주의 노선(흑묘백묘론, 4대 부문 현대화, 경제 특구 설치) 미·중 국교 정상화(덩샤오핑 ~ 카터, 경제 원조 획득, 1979) 후야오방 사망(1989. 4월) ⇨ 텐안먼 사건(5월) ⇨ 장쩌민 주석 취임(1990)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1992), 홍콩 반환(1997), 마카오 반환(1999), WTO 가입(2001)

05	서양 고대	
에게 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청동기 문명, 크레타 문명 ⇨ 미케네 문명 ⇨ 도리스인의 침입 ⇨ 멸망 	
그리스 (BC. 10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스(polis), 아테네(제한적 직접 민주 정치)와 스파르타(도리스인, 군국주의적 귀족 정치) • 아테네의 정치[왕정 ⇨ 귀족정(솔론의 개혁) ⇨ 참주정 ⇨ 민주정의 시작(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 페르시아 전쟁 → 아테네 민주정의 전성기(페리클레스 시대, 델로스 동맹의 맹주, 파르테논 신전) • 펠로폰네소스 전쟁(BC. 431 ~) ⇨ 스파르타 시대 ⇨ 테베 시대 ⇨ 마케도니아(필리포스 2세) • 동족 의식(올림피아 제전), 다신교, 인간 중심, 소피스트·소크라테스, 호메로스·헤시오도스 	
로마 (BC. 8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정 ⇨ 귀족 공화정 ⇨ 공화정의 민주화 ⇨ 포에니 전쟁(BC. 264 ~) ⇨ 삼두 정치 ⇨ 제정 • : 호민관 설치(BC. 494), 평민회 설치, 12표법(BC. 450) → 리키니우스 법 → 호르텐시우스 법 • :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BC. 133 ~), 스파르타쿠스의 난, 옥타비아누스의 악티움 해전(BC. 31) • 로마의 평화 시대 ⇨ 군인 황제 시대 ⇨ 로마의 중흥 노력 ⇨ 동·서 로마의 분열(395) • : 네르바 ~ 아우렐리우스, 디오클레티아누스 → 콘스탄티누스 → 테오도시우스(크리스토교 국교화) • 실용적 문화(법률, 아피아 가도, 콜로세움, 판테온), 스토아 철학, 『로마사』·『영웅전』 	
알렉산드로스 제국 (BC. 33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방원정(BC. 334 ~), 전제군주제, 공동체 의식 약화, 헬레니즘 문화(그리스·오리엔트 문화 융합) • 동서 융합(세계 시민주의·결혼 정책)과 알렉산드리아 건설(그리스인 이주) • 간다라 미술에 영향, 라오콘 군상·비너스, 에피쿠로스·스토아학과, 기하학·물리학·의학 발달 	

06	서양 중세(1)	
게르만의 이동 (4C 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트 해 연안(원주지), 훈족 압박 → 프랑크족, 서고트족, 반달족의 이동(반달 왕국 성립, 435 ~) • 서로마 제국 멸망(476), 로마·게르만 문화권 형성, 종사 제도(從士制度) 	
프랑크 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로베우스 왕조(481 ~ 751) • : 클로비스[왕조 개창, 가톨릭 개종(496)], 카롤루스 마르텔[공재·프린스, 투르·푸아티에 전투(732)] • 카롤루스 왕조(751 ~ 843) • : 피핀 3세[킬데리쿠스 3세 폐위, 교황 자카리아스, 롬바르드 왕국 정벌, 라벤나 교황청 기증(756)] • : 카롤루스 대제[재위 768 ~ 814, 수도 아헨, 이베리아 반도 진출, 서로마 황제 대관(800), 정복지에 교회 건설, 중앙집권화 시도, 카롤루스 르네상스(라틴어, 라틴문학, 궁정학교 설립)] • 베르됭 조약(843)·메르센 조약(870)으로 분열 • : 서프랑크[카페 왕조(987 ~ 1328)], 동프랑크[오토 1세, 레히펠트 전투, 신성로마제국(962 ~ 1806)] 	
노르만의 이동 (9C 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칸디나비아 지방(원주지), 바이킹, 서유럽 봉건 사회의 형성 촉진 • 노르망디 공국(911), 노르만 왕조(윌리엄 공, 둠즈데이북, 1066 ~ 1154), 나폴리 왕국·시칠리아 왕국, 노브고로드 공국·키예프 공국 	
봉건적 정치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제도(게르만) + 은대지 제도(로마) • 주군 + 봉신(가신), 쌍무적 계약관계, 충성 서약, 불입권(Immunity) 행사, 지방 분권화 촉진 • 최상위 주군(황제, 국왕, 교황), 최하위의 가신(말단 기사, 사제) 	
장원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쇄적·자급자족, 경제 공동체, 영주 직영지·농노 보유지, 개방 경지제도, 삼포제 경작 • 성·교회·생산시설, 농노(일하는 자, 부역·공납의 의무, 군사 복무 No!, 경제 외적 제재) 	
크리스토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라노 칙령(콘스탄티누스, 공인, 313) ⇨ 니케아 공의회(325) ⇨ 국교화(테오도시우스 황제, 392) • 5대 교구(로마·비잔티움·안티오크·예루살렘·알렉산드리아) ⇨ 2대 교구(로마·비잔티움) • 성직계서제[교황 ⇨ 대주교 ⇨ 주교 ⇨ 교구 성직자(사제)] • 클로비스의 개종(496), 우상 파괴령(비잔틴 제국의 레오 3세, 726)과 동·서 교회의 분열(1054), 피핀 3세의 라벤나 지방 기증(756), 카롤루스 대관(800), 오토 대제 대관(962), • 10세기 수도원 운동(클뤼니 수도원 중심, 교회 정화 운동, 그레고리우스 7세·우르바누스 2세 배출) • 주교 서임권 분쟁(하인리히 4세 ⇨ 그레고리우스 7세) → 교황령(1075) → 카노사의 굴욕(1077) • 클레르몽 공의회(우르바누스 2세, 십자군 전쟁 결의, 1095) → 제1차 십자군 전쟁(1096 ~ 1099) • 보름스 협약(하인리히 5세 ~ 칼리스투스 2세, 교속 서임권 분쟁의 일단락, 1122) • 교황 인노첸티우스 3세[재위 1198 ~ 1216, 제4차 십자군(1202 ~), 존 왕 파문, 교황(해)·황제(달)] 	

<p>07 서양 중세(2)</p>	
<p>중세의 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부 철학(4C,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스콜라 철학(13C,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1267) 대학 발전[자치 조합, 라틴어 강의, 볼로냐 대학(학생 조합, 1158), 파리 대학(교수 조합, 1215)] 바실리카 양식(4C ~) → 로마네스크 양식(11C, 피사 성당) → 고딕 양식(12C, 샤르트르 대성당) 기사도 문학[『롤랑의 노래(론세스바에스 전투)』, 『아서 왕 이야기』, 『니벨룽겐의 노래』]
<p>십자군 전쟁 (1096 ~ 127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의 팽창(세속), 셀주크튀르크의 예루살렘 점령(1071)과 성지 순례 박해(종교) 제1차(예루살렘 왕국, 1099), 제3차(아이유브 왕국, 살라딘, 1189), 제4차(라틴 제국, 1204) 실패 → 중세 유럽 봉건 사회의 변화(정치, 종교, 경제)
<p>경제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생산력 증가 → 상업 발달 → 도시 발달[한자 동맹(함부르크·뤼베크 중심, 1241)] : 특허장·자치권 행사(길드), 자유 시민(Bourgeois)의 성장,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 북유럽 교역권(함부르크·플랑드르), 내륙 교역권(상파뉴 정기시), 지중해 교역권(베네치아·피렌체) 길드(guild), 장인·직인·견습공, 폐쇄적, 공동의 이익과 안전 도모, 자유 상공업의 발달 억제 장원 해체, 지대 변화(노동 → 현물·화폐), 흑사병 창궐(1347 ~) ⇨ 농노의 지위 향상 자크리의 난(플랑드르, 1358), 와트 타일러의 난(존 불의 후원, 1381) 등 농민 반란
<p>크리스트교의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십자군 전쟁 실패(1270), 신앙심 약화, 교황 권위 실추 성직자 과세 문제, 필리프 4세 ⇨ 보니파키우스 8세, 삼부회 소집(1302) : 아비뇽 유수(1309 ~ 1377) ⇨ 교회의 대분열(로마 ⇨ 아비뇽, 1378 ~ 1417) ⇨ 피사 공의회(1409) ⇨ 콘스탄츠 공의회(로마 교황의 정통성 인정, 위클리프의 이단 규정·후스 처형, 1414 ~ 1418)
<p>정치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권 강화, 통일 국가 수립, 중앙 집권 추구, 신분제 의회 형성 영국[노르만 왕조(1066 ~ 1153), 대헌장(존 왕, 1215), 시몽 드 몽포르 의회(1265), 모범 의회(1295), 양원제 의회 확립(에드워드 3세, 1341)] 프랑스[카페 왕조, 루이 6세, 필리프 2세(제4차 십자군 전쟁), 필리프 4세(삼부회 소집), 987 ~ 1328] 백년 전쟁(에드워드 3세 ⇨ 필리프 6세, 1337 ~ 1453) ⇨ 장미 전쟁 ⇨ 튜더 왕조 개창(1485 ~) 신성 로마 제국[오토 대제, 대공위 시대(1256 ~ 1273), 황금문서(1356, 카를 4세), 962 ~ 1806] 에스파냐[레콘키스타(718 ~ 1492), 왕국 성립(아라곤 + 카스티야, 1469), 이사벨 여왕] 포르투갈[카스티야로부터 독립(1143), 해외 진출 확대와 인도 항로 개척(1498)] 러시아[이반 3세(몽골 축출, 1480), 이반 4세(차르 칭호, 성 바실리 성당, 1561)]
<p>비잔티움 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오클레티아누스(4분 통치) ⇨ 콘스탄티누스(콘스탄티노폴리스 천도, 330) ⇨ 로마의 분열(395) 유스티니아누스[재위 527 ~ 565, 반달 왕국(북부 아프리카) 점령, 『로마법 대전』, 성 소피아 성당] 7C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압박 → 시리아와 이집트 상실, 군관구제·둔전병제 확립 9C 지방 유력자들의 대토지 소유 경향으로 둔전병제 붕괴 11C 셀주크 튀르크의 침입 → 알렉시우스 1세(재위 1081 ~ 1118), 서유럽에 십자군 파병 요청 15C 오스만 제국 술탄 메(흐)메트 2세의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으로 멸망(1453) 상공업 발달, 중계 무역 번성(콘스탄티노폴리스), 산업 통제와 해군력으로 교역 보호 그리스 정교, 황제 교황주의(정교일치), 비잔티움 양식, 그리스어(공용어), 슬라브 문화권 형성



<십자군 전쟁>



<비잔티움 제국과 5대 교구>

오늘도 역사를 합시다!!

08 중세 유럽의 변화	<p>르네상스 (14 ~ 16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주의적 근대 문화 창조 운동, 그리스·로마 문예 부흥 운동, 중세의 세계관 극복 • 이탈리아[피렌체(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마키아벨리, 보티첼리), 교황령(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밀라노(레오나르도 다빈치)] • 알프스 이북[크리스티교적 인문주의, 에라스무스(『우신예찬』, 1511), 토머스 모어(『유토피아』)] • 미술(반에이크 형제·브뤼헬·홀바인·엘 그레코), 국민 문학[세르반테스(『돈키호테』), 셰익스피어] •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술(1455),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1543) <p>종교 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터[비텐베르크, 교황의 면벌부 판매 ⇔ 95개조 반박문(1517), 신앙의 근거는 성서, 보름스 국회] • 칼뱅[프랑스 출신, 제네바, 직업소명설·예정설, 『크리스티교 강요』, 장로제, 1536] • 영국 국교회[헨리 8세(수장법, 1534), 엘리자베스 1세(통일법, 1559), 정치적 이유] • 슈말칼덴 전쟁(1546 ~ 1555, 아우크스부르크 회의), 위그노 전쟁(1562 ~ 1598, 앙리 4세, 낭트 칙령), 네덜란드 독립 전쟁(고이센, 1568 ~ 1648), 30년 전쟁(1618 ~ 1648, 베스트팔렌 조약) • 예수회 설립(로올라, 1534), 트리엔트 공의회(라틴어 불가타 성경의 권위 인정, 1545 ~ 1563)
--------------	---

09 유럽 세계의 변화	<p>신항로 개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만의 지중해 교역 차단, 조선술·항해술 발달, 항신료(후추)에 대한 수요 증가, 『동방견문록』 •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톨로메우 디아스(희망봉, 1488), 바스쿠 다가마(인도 항로, 1498) : 호르무즈·고아·몰라카·마카오 등의 무역 기지를 건설하여 항료 무역 전개 • 에스파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럼버스(이사벨 1세의 후원, 서인도 제도, 1492), 아메리고 베스푸치(서인도 제도의 신대륙 확인, 1502), 마젤란(최초의 세계 일주, 필리핀에서 사망, 1519 ~ 1522) • 지중해·대서양 교역, 가격 혁명과 상업 혁명, 선대제·매뉴팩처, 신대륙 작물의 전래 • 은(銀)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 교역망의 형성, 유럽 ⇔ 인도(무굴 제국), 유럽 ⇔ 중국(명·청) <p>절대 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스파냐 펠리페 2세(재위 1527 ~ 15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적함대, 레판토 해전(1571), 포르투갈 병합, 가톨릭 강화 정책 → 네덜란드 북부 7주의 독립 •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 전쟁(from 에스파냐, 1568 ~ 1648), 동인도회사 설립(1602), 몰라카 확보(from 포르투갈) • 영국 엘리자베스 1세(재위 1558 ~ 16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레 해전(무적함대 격파, 1588), 동인도회사 설립(1600), 통일법 반포, 제1차 인클로저 운동 • 프랑스 루이 14세(재위 1643 ~ 1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왕, 프롱드의 난 진압, 콜베르 재무 장관 등용, 낭트 칙령 폐지(퐁텐블로 칙령, 1685) • 프로이센 프리드리히 2세(재위 1740 ~ 17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몽군주, 국가 제일의 공복 자처, 쉐레지엔 지방 차지(7년 전쟁), 폴란드 분할, 반마키아벨리론 •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아(재위 1740 ~ 17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1740 ~ 1748), 7년 전쟁(1756 ~ 1763) → 쉐레지엔 상실 • 러시아 표트르 대제(재위 1682 ~ 1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화 정책, 북방 전쟁(⇔ 스웨덴, 발트 해 진출), 네르친스크 조약,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1703) • 러시아 예카테리나 2세(재위 1762 ~ 17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비에서 황제로, 계몽 전제 군주 자처, 농노제 강화, 폴란드 분할(1772), 흑해·알래스카 진출 <p>17 ~ 18C 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C(바로크 양식, 베르사유 궁전, 루이 14세), 18C(로코코 양식, 상수시 궁전, 프리드리히 2세) • 귀납법(베이컨, 『노름 오르가눔』, 1620), 연역법(데카르트, 『방법서설』, 1637), 『리바이어던』(홉스, 1651), 『시민정부론』(로크, 1689·1690), 『백과전서』(디드로·달랑베르, 1751 ~ 1772) • 『사회계약론』·『에밀』(루소, 일반 의지, 1762), 『국부론』(애덤 스미스, 고전 경제학의 토대, 1776) • 갈릴레이의 천체 관측(지동설 옹호, 1609), 케플러의 행성 운행의 법칙(지동설의 수정·발전, 1609), 하비의 혈액 순환론 연구(『심장과 피의 운동에 대하여』, 1628), 뉴턴(『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프린키피아)』, 기계론적 우주관 확립, 1687)
--------------	--

10 시민 혁명(1)	
<p>영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교도 혁명(1642 ~ 1649) : 제임스 1세[재위 1603 ~ 1625, 스튜어트 왕조 개창, 왕관신수설 고집, 국교회 강화, 청교도 탄압] : 찰스 1세[재위 1625 ~ 1649, 프랑스와의 전쟁을 위해 자의적인 세금 부과, 의회에서 제출한 권리 청원 승인(1628), 의회 해산(1629),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을 위해 의회 재소집(1640), 의회파와 왕당파의 내전 발생(1642 ~ 1649), 의회파의 승리, 찰스 1세의 처형과 공화정 수립(1649)] : 크롬웰[아일랜드 원정 단행(1649), 항해법 제정(1651), 호국경 취임(1653), 금욕주의적 독재 정치] • 크롬웰 사후(1658) 의회의 왕정복고 결정 → 왕정복고(1660) • 명예혁명(1688 ~ 1689) : 찰스 2세[재위 1660 ~ 1685, 가톨릭 강화 정책, 심사법(1673)·인신보호령(1679), 토리당·휘그당] : 제임스 2세[재위 1685 ~ 1688, 전제 정치 강화, 심사법을 무시하고 비국교도의 공직 임명] ⇨ 의회의 반발, 메리·윌리엄 공동 왕 추대(1688), 의회가 제출한 권리장전 승인(1689) • 앤 여왕[재위 1702 ~ 1714, 대영 제국 수립(스코틀랜드 병합, 1707) • 조지 1세[재위 1714 ~ 1727, 하노버 왕조 개창, 내각 책임제의 정치 전통 수립] 	
<p>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 혁명(1773 ~ 1783) : 프렌치·인디언 전쟁(1755 ~ 1763) ⇨ 인지세법(1765) 등 영국의 식민지 중상주의 정책 강화 ⇨ 식민지 주민의 조직적인 납세 거부 운동('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 차(茶)세만 남기고 철회 : 보스턴 차 사건(1773) ⇨ 제1차 대륙회의(1774) ⇨ 렉싱턴 전투(1775) ⇨ 제2차 대륙회의[대륙군 창설, 워싱턴 총사령관 임명, 『상식』 발표, 독립 선언문 공포(1776), 프랑스의 지원(1778), 요크타운 전투 승리(1781)] : 파리 조약(13개 공화국 독립, 1783) ⇨ 연방 헌법 제정(1787) ⇨ 아메리카 합중국 성립(1789) 	
<p>프랑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혁명(1789 ~ 1799) : 구제도의 모순, 계몽사상 확산, 재정 적자 심화(루이 16세, 왕실의 사치, 미국 독립 전쟁 지원) : 삼부회 소집·결렬(1789) ⇨ 국민의회[바스티유 감옥 습격 → 8월 법령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 베르사유 대행진 → 바렌스 사건(1791) → 1791년 헌법 제정] ⇨ 입법의회[혁명전쟁 발발(1792), 8월 민중 혁명(1792)과 왕권 정지, 루이 16세 퇴위 공표] ⇨ 국민공회[군주제 폐지, 공화정 선포(1792. 9월), 루이 16세 처형(1793. 1월), 혁명 재판소·공안위원회 설치(1793. 3 ~ 4월), 자코뱅 헌법 제정(1793. 8월), 제1 공화정] ⇨ 공포 정치[로베스피에르, 마리 앙투아네트 처형] ⇨ 테르미도르의 반동(1794. 7월) ⇨ 총재 정부 수립(1795) ⇨ 이탈리아 원정(1796) ⇨ 이집트 원정(1798) ⇨ 나폴레옹, 통령 정부 수립(1799 ~ 1804) 	
<p>나폴레옹 시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령 정부(1799 ~ 1804) : 프랑스 은행 설립(1800), 튀네빌 화약(1801), 아미앵 화약(1802), 나폴레옹 법전 편찬(1804) • 제1 제정(1804 ~ 1815) : 황제 즉위(나폴레옹 1세, 노트르담 대성당), 트라팔가르 해전 패배(1805) ⇨ 아우스터리츠 전투 승리(1805) ⇨ 신성 로마 제국 해체(1806) ⇨ 대륙봉쇄령(베를린, 1806) ⇨ 틸지트 조약(~프로이센~러시아, 1807) ⇨ 모스크바 원정(1812) ⇨ 라이프치히 전투 패배(1813) ⇨ 엘바 섬 유배(1814) ⇨ 워털루 전투 패배(1815) ⇨ 세인트헬레나 섬 유배 • 자유주의 이념 확산,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 고양(피히테, 『독일 국민에게 고함』, 1806) 	
<p>빈 체제의 성립과 중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 회의(메테르니히 주도, 1814 ~ 1815) ⇨ 빈 체제(정통주의·복고주의, 왕정복고, 1815 ~ 1848) : 신성동맹(알렉산드르 1세, 러시아·오스트리아·프로이센), 4국 동맹(신성동맹 + 영국)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는 바르샤바 대공국 대부분을 차지한다. • 프로이센은 작센 지방 영토 5분의 3을 차지하며, 바르샤바 대공국의 일부(포젠 대공국), 단치히, 라인란트 등지를 얻는다. • 옛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국을 정리하여 38개의 연방 국가를 모아 독일 연방을 창설한다. 연방의 의장은 오스트리아 황제가 맡는다. </div> • 빈 체제 하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 : 부르센샤프트(독일 지역, 학생 조합, 1815), 데카브리스트의 난(러시아, 니콜라이 1세, 1825) : 카르보나리당(1806 ~, 1820 ~ 1821·1831), 청년 이탈리아당(마치니, 1831)의 혁명 운동 : 그리스 독립 전쟁(영국·프랑스·러시아 정부의 지원, from 오스만 제국, 1821 ~ 1829) : 아이티 공화국 수립(from 프랑스, 1804), 몬로 선언(라틴아메리카의 독립 지원, 1823) 	

<p>11 시민 혁명(2)</p>	<p>프랑스 자유주의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혁명(1830) : 부르봉 왕조 부활(루이 18세, 1815) 샤를 10세(재위 1824 ~ 1830)의 7월 칙령 → 전제 정치 강화 : 파리 시민의 봉기, 7월 왕정 수립(루이필리프 1세), 벨기에 독립·영국의 제1차 선거법 개정에 영향 • 2월 혁명(1848) : 루이필리프 1세의 친(親)부르주아 정책 : 중하층 시민과 노동자 주도, 선거권 확대 요구 : 제2 공화정(루이 나폴레옹을 대통령으로 선출), 빈 체제 붕괴(오스트리아 3월 혁명) • 제2 제정(1852 ~ 1870) : 루이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나폴레옹 3세), 크림 전쟁(오스만 지원, 1853 ~ 1856), 제2차 아편 전쟁 참여(1856 ~ 1860), 이탈리아의 통일 지원(프롱비에르 협정(1858), 사보이·니스 할양, 1859 ~ 1860), 멕시코에 군사 개입(막시밀리안 초빙, 1863), 수에즈 운하 건설(1869), 프로이센과 전쟁 패배(1870) • 파리 코뮌(1871)
<p>영국의 자유주의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선거법 개정(1832) : 인민헌장(People's Charter) 발표(1838) → 차티스트 운동(1838 ~ 1848) • 제2차 선거법 개정(1867), 제4차 선거법 개정(1918), 제5차 선거법 개정(1928) • 십사법 폐지(1828), 가톨릭교도 해방법(1829), 곡물법 폐지(1846), 항해법 폐지(1849)
<p>19C 민족주의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리아의 통일 : 사르데냐 왕국[재상 카보우르, 프롱비에르 협정(1858), 오스트리아와 전쟁(1859 ~ 1860)] : 가리발디[붉은 의용 대장, 시칠리아·나폴리 왕국 점령 → 사르데냐 왕국에 헌납] : 이탈리아 왕국 수립[수도 피렌체, 초대 국왕(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1861] : 베네치아 병합(1866), 로마 교황령 점령(1870) • 독일의 통일 : 관세 동맹(프로이센 주도, 1834),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대독일주의 ⇄ 소독일주의, 1848 ~ 1849) : 비스마르크의 재상 취임과 철혈정책(1862) ⇄ 북독일 연방 결성(⇄ 오스트리아, 1867) ⇄ 남독일 연방 결성(⇄ 프랑스, 1870) ⇄ 제정 수립[빌헬름 1세 즉위(재위 1871 ~ 1888), 베르사유 궁전, 1871]
<p>19C 미국·러시아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남북 전쟁(1861 ~ 1865)과 발전 : 링컨 대통령 당선(1860) ⇄ 남부 7주의 연방 탈퇴 ⇄ 남군의 섬터 요새 공격(1861) ⇄ 노예 해방 선언(1863) ⇄ 게티즈버그 전투(1863) ⇄ 북군의 승리(1865) ⇄ 대륙 횡단 철도 부설(1869) • 러시아의 발전 : 차르 전제 정치와 농노제의 지속 : 니콜라이 1세[재위 1825 ~ 1855, 데카브리스트의 난 진압(1825), 크림 전쟁 패배(흑해 진출 실패)] : 알렉산드르 2세[재위 1855 ~ 1881, 농노 해방령(1861), 러시아·튀르크 전쟁 승리(발칸 반도에서의 영향력 증대, 1877 ~ 1878), 브나로드 운동(나로드니키, 농촌 운동, 1873 ~ 1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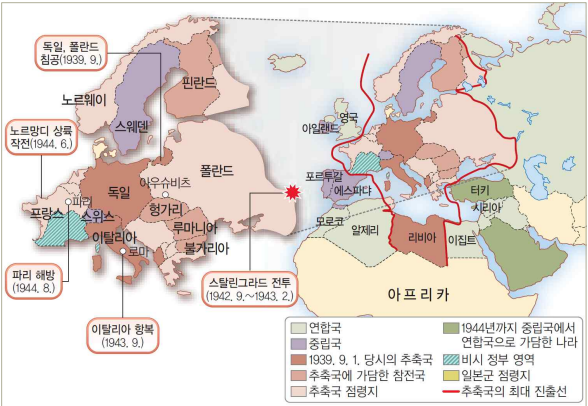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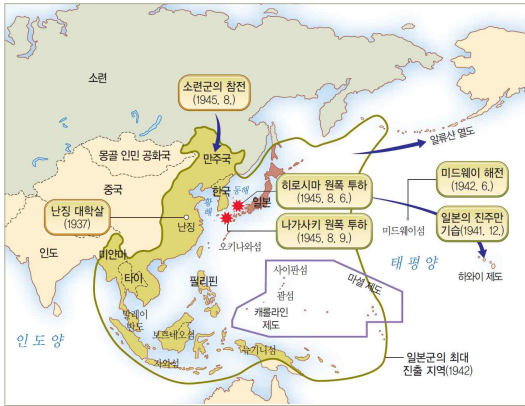
<p>12 산업 혁명</p>	<p>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제2차 인클로저 운동, 인도산 면직물 수요 증가, 풍부한 석탄, 1768)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혁명(방직기·방직기) ⇄ 동력 혁명(증기기관, 제임스 와트, 1782) ⇄ 교통 혁명(증기선(폴턴), 증기 기관차(스티븐슨)) ⇄ 통신 혁명[유선 전신(모스), 무선 전신(마르코니), 전화(벨)] <p>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제 기계 공업, 산업화와 도시화, 계급 분화(산업 자본가 ⇄ 노동자 계급) • 실업자 증가(러다이트 운동, 1811 ~ 1817), 노동 문제[여성·아동 노동, 공장법 제정(1833)] • 사회주의 사상 대두 : 공상적 사회주의[생시몽, 푸리에, 오언(협동촌)] : 과학적 사회주의[마르크스·엔겔스, 『공산당 선언』(1848)]
-----------------	--

13	19C 사상 · 과학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낭만주의(바이런·들라크루아) ⇨ 사실주의·자연주의(디킨스, 쿠르베) • 헤겔(변증법), 벤담(공리주의), 콩트(사회학), 랑케(실증주의 역사학)
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윈(『종의 기원』, 1859), 멘델(유전 법칙, 1865), 패러데이(전자기 유도 법칙), 파스퇴르(세균학)

14	제국주의의 출현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략적 민족주의, 독점 자본주의, 사회 진화론(스펜서), 서양의 문화·인종 우월주의 														
아프리카 분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종단 정책, 카이로 ~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연방 조직, 세실 로즈, 3C 정책) • 프랑스(횡단 정책, 알제리·튀니지 ~ 마다가스카르, 사하라 사막 확보, 콩고 분할) • 독일(남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카메룬, 토고, 콩고 북부 할양) • 벨기에(콩고), 포르투갈(앙골라·모잠비크), 이탈리아(리비아), 에티오피아·라이베리아(독립국) • 파소다 사건(영국 ⇨ 프랑스, 1898), 모로코 사건(프랑스 ⇨ 독일, 1905·1911) 														
아시아 분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미얀마 → 영국령 인도 제국 병합(1886), 말레이 연방 결성(1895)] • 프랑스[청프 전쟁(1884 ~ 1885),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1887)] • 네덜란드[말루쿠 제도 진출, 플라카 확보(from 포르투갈), 네덜란드령 동인도 건설(1904)] • 에스파냐[필리핀 지배, 미국·에스파냐 전쟁(1898) → 미국] 														
대결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국동맹(비스마르크 주도, 독일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 이탈리아, 1882) : 빌헬름 2세(재위 1888 ~ 1918, 범게르만주의, 3B 정책, 전함 경쟁) •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국협상[러·프 동맹(1894) ⇨ 영·프 협상(1904) ⇨ 영·러 협상(1907)], 범슬라브주의 • 발칸 반도(유럽의 화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1867 ~ 1918)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합(1908) : 제1차 발칸 전쟁(제1차 발칸 동맹 ⇨ 오스만 제국, 1912) : 제2차 발칸 전쟁(제2차 발칸 동맹 ⇨ 불가리아, 1913)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리비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만 제국의 지배 ⇨ 이탈리아의 식민 지배 • 알 무크타르의 저항 운동으로 이탈리아의 지배력 약화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알제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의 침략(1830)과 저항 운동 • 프랑스 인 정착지 건설, 원주민 차별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단</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 영국의 지배 • 무함마드 아흐마드(1844 ~ 1885) : 마흐디(구원자) 운동(1881 ~ 1898), 군대 양성고 토지 개혁 추진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에티오피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넬리크 2세(재위 1889 ~ 1910) : 에티오피아 통일, 철도·학교 설립, 신식 군대 창설 : 아도와 전투(⇨ 이탈리아, 1896) 승리 → 아디스아바바 조약으로 독립 인정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줄루 왕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카 줄루 : 부족을 통합해 왕국 건설 : 이산들과나 전투(⇨ 영국, = 줄루 전쟁, 1879) 승리 → 영국의 식민지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나미비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레로 족의 무장 봉기(1904) : 독일 로타르 폰 트로타 장군의 무력 진압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탄자니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지마지 운동(1905 ~ 1907) : 킨 체케틸레 주도, 목화 나무를 뽑으며 봉기 : 독일의 초토화 전술 </td> </tr> </table>	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만 제국의 지배 ⇨ 이탈리아의 식민 지배 • 알 무크타르의 저항 운동으로 이탈리아의 지배력 약화 	알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의 침략(1830)과 저항 운동 • 프랑스 인 정착지 건설, 원주민 차별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 영국의 지배 • 무함마드 아흐마드(1844 ~ 1885) : 마흐디(구원자) 운동(1881 ~ 1898), 군대 양성고 토지 개혁 추진 	에티오피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넬리크 2세(재위 1889 ~ 1910) : 에티오피아 통일, 철도·학교 설립, 신식 군대 창설 : 아도와 전투(⇨ 이탈리아, 1896) 승리 → 아디스아바바 조약으로 독립 인정 	줄루 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카 줄루 : 부족을 통합해 왕국 건설 : 이산들과나 전투(⇨ 영국, = 줄루 전쟁, 1879) 승리 → 영국의 식민지 	나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레로 족의 무장 봉기(1904) : 독일 로타르 폰 트로타 장군의 무력 진압 	탄자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지마지 운동(1905 ~ 1907) : 킨 체케틸레 주도, 목화 나무를 뽑으며 봉기 : 독일의 초토화 전술
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만 제국의 지배 ⇨ 이탈리아의 식민 지배 • 알 무크타르의 저항 운동으로 이탈리아의 지배력 약화 														
알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의 침략(1830)과 저항 운동 • 프랑스 인 정착지 건설, 원주민 차별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 영국의 지배 • 무함마드 아흐마드(1844 ~ 1885) : 마흐디(구원자) 운동(1881 ~ 1898), 군대 양성고 토지 개혁 추진 														
에티오피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넬리크 2세(재위 1889 ~ 1910) : 에티오피아 통일, 철도·학교 설립, 신식 군대 창설 : 아도와 전투(⇨ 이탈리아, 1896) 승리 → 아디스아바바 조약으로 독립 인정 														
줄루 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카 줄루 : 부족을 통합해 왕국 건설 : 이산들과나 전투(⇨ 영국, = 줄루 전쟁, 1879) 승리 → 영국의 식민지 														
나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레로 족의 무장 봉기(1904) : 독일 로타르 폰 트로타 장군의 무력 진압 														
탄자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지마지 운동(1905 ~ 1907) : 킨 체케틸레 주도, 목화 나무를 뽑으며 봉기 : 독일의 초토화 전술 														

15	제1차 세계 대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국동맹 ⇄ 삼국협상, 범게르만주의 ⇄ 범슬라브주의, 3B 정책 ⇄ 3C 정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라예보 사건(1914. 6월)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선전 포고 ⇄ 독일, 벨기에·프랑스 침공 ⇄ 영국 참전 ⇄ 마른 전투(1914) ⇄ 이탈리아의 협상국 참전(1915) ⇄ 솜 전투(1916) ⇄ 영국 해군의 독일 봉쇄 ⇄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1917) ⇄ 미국 참전[루시타니아 호 침몰(1915), 치머만 전보 사건(1917. 1월, 1917. 4월)] ⇄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1918. 3월) ⇄ 독일 길 군항 수병들의 반란(1918) ⇄ 독일 11월 혁명 ⇄ 빌헬름 2세 폐위 ⇄ 전쟁 종결(1918. 11월) 후세인·맥마흔 비밀 서한(1915), 벨푸어 선언(1917)
베르사유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리 강화 회의(1919 ~ 1920) :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전승국 대표들의 참가 :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민족 자결주의)에 따라 진행 베르사유 조약(1919. 6월) : 전승국 입장, 패전국의 식민지 상실, 독일(알자스·로렌 지방 프랑스 양도, 배상금 지불, 군비 축소)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top: 5px;"> <p>제45조 독일은 프랑스 북부의 탄광 지대를 파괴한 보상으로 자르 강 유역에 있는 탄광 지대의 독점 채굴권을 포함한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소유권을 프랑스에 넘겨준다. 제119조 독일은 해외 식민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요구를 동맹국과 연합국의 주요 국가에 넘겨준다. 제173조 독일에서 일반 의무병제는 폐지된다. 독일 육군은 지원병제로만 조직하고 보충할 수 있다. 제235조 독일은 동맹국과 연합국의 청구액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배상 위원회가 정하는 지급 방법에 따라 200억 마르크 급화에 상당하는 돈을 1921년 4월까지 지불한다.</p> </div>
전후 세계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를 위한 노력 : 국제 연맹 창설(1920), 워싱턴 회의(1921 ~ 1922), 로카르노 협정(1925), 켈로그·브리앙 조약(1928) 독일의 배상금 문제 논의 : 도스안(1924) ⇄ 영안(1929) ⇄ 로잔회의(1932) 민주주의의 발전 : 공화정 수립(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터키), 노동당 내각(영국), 여성 참정권(영국, 1918 → 1928)

16	러시아 혁명
혁명 전의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의 일요일 사건(1905) : 러일 전쟁 중 의회 소집, 시민적 자유 등을 황제에게 진정하기 위한 평화로운 군중 시위 발발 : 차르 수비대의 무력 진압, 니콜라이 2세의 10월 선언 → 두마 의회 개설(1906)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러시아력 2월) 혁명 : 제1차 세계 대전의 참전과 거듭된 패전 ⇄ 식량 배급, 전쟁 중지, 차르 전제 정치 타도 등 요구(페트로그라드) ⇄ 케렌스키 임시 정부 수립 11월(러시아력 10월) 혁명 : 케렌스키 임시 정부의 미온적 개혁(전쟁 지속, 토지 개혁 지연) ⇄ 전쟁 중지, 모든 권력의 소비에트 이양 등을 주장하는 볼셰비키의 무장 봉기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닌(1870 ~ 1924)의 소비에트 정부 : 볼셰비키의 일당 독재,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1918. 3월), 내전(백색군 ⇄ 적색군) 발생, 코민테른 창설(1919 ~), 사회주의 경제 개혁 추진, 신경제 정책 추진(NEP, 자본주의 요소 도입, 1921 ~ 1928)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top: 5px;"> <p>01.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불가리아 왕국, 오스만 제국 진영과 러시아측 진영은 이들 사이에 교전 상태가 중단되었음을 선언한다. 이들은 이후 평화와 상호간의 우호 관계 속에서 살기로 결정한다. 03. 조약 당사국들에 의해 합의된 이전에 러시아에 속했던 선(線) 서쪽의 영토는 더 이상 러시아 주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사국 간에 합의된 선은 이 평화조약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제출된 지도에 의해 정해진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수립(= 소련, 1922 ~ 1991) 스탈린(1878 ~ 1953)의 독재 체제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28 ~), 굴라크(수용소) 건설, 집단 농장 운영

<p>17 제2차 세계 대전</p>	<p>경제 대공황 (19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설비의 과잉 투자 ⇨ 과잉 생산 ⇨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 주가 폭락(검은 목요일, 10. 24) • 실업자 급증, 농산물 가격 폭락, 풍요 속의 빈곤
<p>자유 진영의 극복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루스벨트의 뉴딜 정책(테네시 강 개발, 농업조정법·전국산업부흥법·노동관계법), 달러 블록] • 프랑스[좌파 인민전선 내각 수립(1936), 프랑 블록 형성] • 영국[제2차 맥도널드 거국 내각 결성(1929), 국가 재정 삭감, 오탁와 연방회의(1932), 파운드 블록]
<p>전체주의의 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상주의, 일당 독재, 군국주의, 팽창주의, 언론과 사상 통제, 노동 운동 탄압 • 이탈리아[무솔리니(1883 ~ 1945), 파시스트당(1919), 로마 진군(1922), 에티오피아 침공(1935 ~ 1936)] • 독일[히틀러, 나치당, 총선 승리(1932), 총통 취임(1934), 인종주의, 재무장 선언(1935), 괴벨스] • 일본[일왕 중심의 군국주의, 만주 사변(1931) ⇨ 만주국 수립(1932) ⇨ 중·일 전쟁(1937)] • 에스파냐 내전[프랑코 군부 세력의 쿠데타(1936), 독일·이탈리아의 지원, 프랑코 정권 수립(1939)] • 독일·일본의 국제연맹 탈퇴(1933), 추축국 동맹(독일·이탈리아, 1936), 이탈리아 국제연맹 탈퇴(1937) • 방공 협정 체결(독일·일본, 1936) ⇨ 이탈리아의 가입(1937) ⇨ 3국 추축진영 형성(1937)
<p>전쟁의 발발과 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 팽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트리아 병합(1938) ⇨ 수데텐 지방 요구 ⇨ 뮌헨 회담에서 수용 ⇨ 체코슬로바키아 점령(1939) ⇨ 단차히 회랑(폴란드) 요구 ⇨ 영·프·폴 상호 원조 조약 ⇨ 독·소 불가침 조약(1939. 8월) • 폴란드 침공(1939. 9월) ⇨ 덴마크·노르웨이·네덜란드 침략 ⇨ 뫼르메르크 다이아몬드 철수 작전(처칠) ⇨ 나치의 파리 점령과 비시 정부 수립(1940. 6월) ⇨ 드골의 자유 프랑스 결성(레지스탕스 운동) ⇨ 독일의 소련 영토 진격(1941. 6월) ⇨ 연합국의 일본에 대한 경제 봉쇄(ABCD 포위 작전) ⇨ 태평양 전쟁(일본의 진주만 기습, 1941. 12월) ⇨ 미국 참전 ⇨ 미드웨이 해전(1942. 6월) ⇨ 스탈린그라드 전투(1942 ~ 43) ⇨ 이탈리아 항복(1943. 9월) ⇨ 노르망디 상륙 작전(1944. 6월) ⇨ 파리 해방(1944. 8월) ⇨ 독일 항복(1945. 5월) ⇨ 일본 항복(1945. 8월) • 대서양 헌장(처칠 ~ 루스벨트, 1941. 8월) ⇨ 카이로 회담(1943. 11월) ⇨ 테헤란 회담 ⇨ 알타 회담(1945. 2월) ⇨ 샌프란시스코 회의(1945. 6월) ⇨ 포츠담 회담(1945. 7월)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전후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연합(UN) 창설(1945. 10월) •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1945 ~ 1946), 도쿄 전범 재판(1946 ~ 1948) • 독일 분할(미·영·프·소), 일본(SCAP의 지배)

<p>18 냉전 체제</p>	<p>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 진영(미국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루먼 독트린(1947), 마셜 플랜(1947), 단독 통화 개혁 시도(서독),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1949) • 공산 진영(소련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민포름(공산당 정보국, 1947), 코메콘(상호 원조 회의, 1949), 바르샤바조약기구(WTO, 1955)
<p>주요 분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의 장막(북서부 유럽 ⇨ 동부 유럽), 베를린 봉쇄(1948 ~ 1949), 베를린 장벽(1961), 쿠바 미사일 위기와 미국의 쿠바 봉쇄(1962), • 한국 전쟁(1950 ~ 1953), 베트남 전쟁(1964 ~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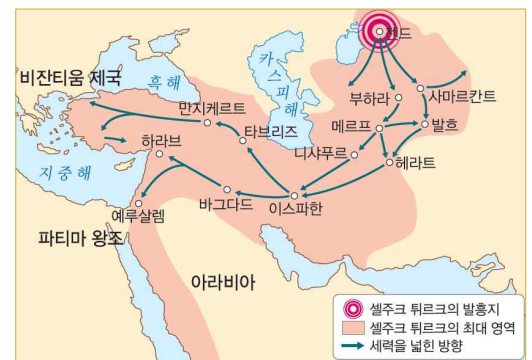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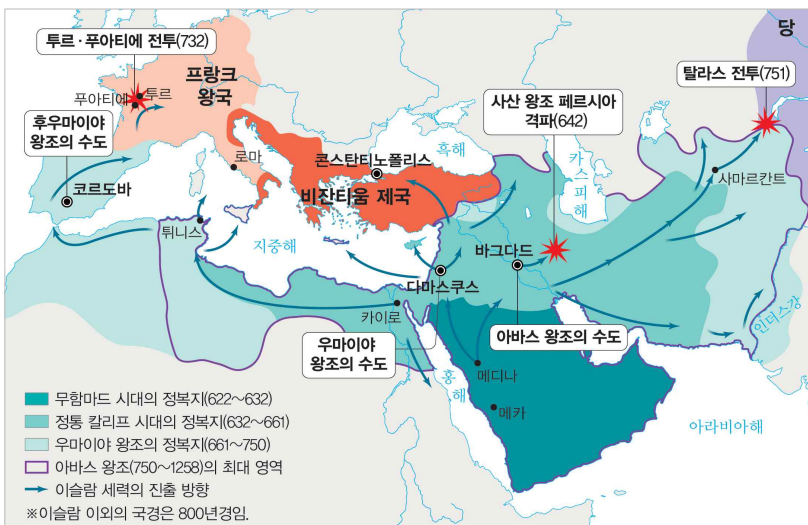
오늘도 역사를 합시다!!

19	냉전 체제 붕괴	
제3 세계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동맹 중립주의 노선 콜롬보회의(평화 5원칙, 1954), 반동회의(평화 10원칙, 1955), 제1차 비동맹회의(베오그라드, 1961) 	
양 진영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련 ~ 서독 국교 회복(1955), 중·소 이념 분쟁(1956 ~)과 국경 분쟁, 티토의 자치관리 사회주의 케네디(재임 1961 ~ 1963)와 흐루쇼프(소련 공산당 서기장, 1955 ~ 1964)의 평화 공존 프랑스의 NATO 탈퇴(1966 → 1992), 독일과 일본의 경제적 성장 	
화해 · 대탕트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확산 방지 조약(1968) ⇨ 닉슨 독트린(1969) ⇨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과 미·중 정상회담(1972)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 정책[동·서독 기본 조약(1972) ⇨ 동·서독 동시 UN 가입(1973)] 제1차 전략 무기 제한(SALT) 협정(닉슨 ~ 브레즈네프, 1972), 미군의 베트남 전쟁 철수(1973) 	
탈냉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르바초프(소련 공산당 서기장 1985 ~ 1990)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글라스노스트(개방) 정책 : 군비 감축, 아프가니스탄의 소련군 철수(1988 ~ 1989), 동유럽 국가에 대한 불간섭, 몰타 회담(1989) 보리스 옐친(러시아 연방 대통령) : 보수 세력의 쿠데타 진압 독립, 국가 연합(CIS) 선언, 소련 해체(1991.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서독 통행 자유화 조치(1989) ⇨ 베를린 장벽 붕괴(1989. 11월) ⇨ 독일 관련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모스크바, 1990. 9월) ⇨ 독일 통일(1990. 10월) 동유럽의 민주화 운동 : 폴란드[자유 노조 운동(1980), 자유 총선거(1989), 바웬사 민선 대통령 당선(1990)] : 헝가리[부다페스트 자유 시위(1956), 다당제·시장 경제 제도 도입, 헝가리 공화국 수립(1990)] : 루마니아[차우세스쿠 정권 붕괴(1989), 자유주의 개혁] : 체코슬로바키아[프라하의 봄(1968), 벨벳 혁명(1989), 하벨의 시민 광장, 임시 대통령 선출(1989)] 	
세계 질서의 다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레턴우즈 회의(국제 통화 금융 회의, 1944) : 미국의 달러를 기축 통화로 결정, 국제 통화 기금(IMF, 1945), 국제 부흥 개발 은행(IBRD, 1945) 자유 무역 체제의 형성과 강화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947) ⇨ 우루과이 라운드(UR, 1986) ⇨ 세계 무역 기구(WTO, 1995) ⇨ 뉴 라운드(NR,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경제 공동체의 형성 : 시암 선언(1950) ⇨ 유럽 철강 석탄 공동체(ECSC, 1952) ⇨ 유럽 경제 공동체(EEC, 1958) ⇨ 유럽 공동체(EC, 1967) ⇨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 ⇨ 유럽 연합(EU, 1993) ⇨ 단일 유료화 사용(1999)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1967), 남아프리카 관세 동맹(SACU, 1969),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 체(APEC, 1989), 북아메리카 자유 무역 협정(NAFTA, 1994) 	

20	고대 서아시아	
아시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서아시아 통일(BC. 671), 니네베(수도, 왕립 도서관), 군용 도로·역전제 정비, 지구라트 건설 중앙 집권 통치(정복지에 총독 파견), 피지배 민족에 대한 강압적 통치 방식으로 멸망(BC. 609)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키루스 2세(리디아의 수도 사르디스 함락, 신바빌로니아 정복, 피지배 민족의 문화와 종교 존중) 캄비세스 2세(이집트 정복) 다리우스 1세(재위 기원전 522 ~ 기원전 486) : 페르세폴리스 건설, 총독(사트라프) 파견, 왕의 길(수사 ~ 사르디스), 역참(驛站) 정비, 감찰관(왕의 눈·왕의 귀) 파견, 그리스·페르시아 전쟁(BC. 492 ~) 조로아스터교 창시(조로아스터, 아후라 마즈다 신봉, 성화단을 만들어 예배)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으로 멸망(다리우스 3세, 이소스 전투) 	
파르티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셀레우코스 왕조의 쇠퇴 → 이란 계통의 유목민이 건국(아르사케스 1세, 크테시폰, BC. 247) 중계 무역으로 번영, 로마 크라수스의 군대 격퇴,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멸망(AD. 226) 	
사산 왕조 페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란계 민족 건국(224), 크테시폰(수도), 쿠산 왕조 침략, 비잔티움 제국과 중계 무역 주도권 경쟁, 메소포타미아 ~ 인더스 강(⇨ 굽타 왕조)에 이르는 대제국 건설, 이슬람 세력의 침입으로 멸망(651) 궁정 건축, 금속 세공품과 유리 공예 발달, 조로아스터교(국교), 『젠드아베스타』, 마니교 창시(→ 탄압) 	

21	이슬람교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 간의 대립 격화 →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지나는 교역로 발달 : 메카·메디나 등의 도시 번성, 다신교로 인한 부족 간 대립 심화, 빈부격차 심화 창시(610), 무함마드(메카, 알라의 계시, 알라에 대한 절대복종), 6신 5행(사하다·라마단·하지 등) 『쿠란』(경전인 동시에 생활 지침서), 피지배 민족의 종교 인정(지즈야, 정통 칼리프 시대)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서 문화 융합, 이슬람 문화권,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 번역(→ 스폴라 철학 성립에 영향) 신학·법학 발달, 자연과학 발달[화학, 수학, 의학(이븐 시나, 『의학정전』), 역법] 모스크[꿰어 엮되려 경배하는 곳, 비잔티움 양식 + 사산 왕조 페르시아 건축 양식 + 돔·첨탑(미나렛)], 조형 미술 쇠퇴(아라베스크 문양 발달, 『여행기』(이븐바투타), 『아라비안나이트』) 	

22	이슬람 세계	
무함마드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헤지라(메카 ⇨ 메디나, 성전, 622), 움마 건설, 메카 탈환, 아라비아 반도 통일(630), 사망(632) 	
정통 칼리프 (632 ~ 6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디나, 선출 칼리프 시대(아부 바르크 ⇨ 우마르 ⇨ 오토만 ⇨ 시아 알리) 사산 왕조 페르시아 정복(651), 시리아 정복, 예루살렘 점령, 이집트 정복, 중앙아시아로 세력 확대 	
우마이야 왕조 (661 ~ 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마스쿠스, 세습 칼리프 시대, 카르발라의 참극(야지드 1세, 시아파 분 수니파, 680) 북서부 아프리카 점령, 이베리아 반도 진출(711), 북인도 진출(713), 투르·푸아티에 전투(732) 패배 아랍인 우월주의, 아랍어(공용어), 바위의 돔 건립(예루살렘, 691) 	
아바스 왕조 (750 ~ 12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그다드(알 만수르, 메디나트 알 살람, 세계의 시장, 관료제·상비군·군인 노예, 탈라스 전투(751)) 아랍인 우월주의 폐지, 이슬람교도의 평등 강조, 범(凡)이슬람 제국, 지혜의 집(바그다드, 832) 몽골 훌라구의 원정으로 멸망(1258) → 훌라구 울루스(= 일 한국) 성립 	
후우마이야 왕조 (756 ~ 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르도바(이베리아 반도), 서(西)칼리프(10세기 전반 칼리프 선언) 이슬람·비잔티움·그리스 문화 융합, 코르도바 메스키타 	
파티마 왕조 (909 ~ 11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아파, 북아프리카에 건국, 카이로 천도(969), 칼리프 선언(10세기 초), 이집트·시리아 지배, 알 아즈하르 대학 설립(카이로, 970년 경), 아이유브 왕조에 멸망 	
그라나다 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함마드 1세의 창립(1231), 알함브라 궁전(1323), 크리스티고 재정복 운동으로 멸망(1492) 	
셀주크 튀르크 (1037 ~ 12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로 이동, 맘루크로 활약, 코니아(수도), 이크타 제도 초대 술탄 투(토)그릴 베그(재위 1037 ~ 1063) : 단다나칸 전투(⇨ 가즈니 왕조, 1040), 이스파한 점령(1049), 바그다드 입성(1055),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알 카임 1세로부터 술탄 칭호 획득 예루살렘 점령(1071), 아나톨리아 진출, 십자군 전쟁 유발, 십자군 전쟁과 내분으로 제국 분열,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 	
아이유브 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집트에 건국(1169), 예루살렘 점령[살라딘, 제3차 십자군 전쟁(1189 ~)], 맘루크에 정복(1250) 	



오늘도 역사를 합시다!!

23 오스만 제국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스만 족, 아나톨리아에서 건국(1299)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리스토그 연합군 격파(발칸 반도 장악, 술탄 칭호 사용) 메흐메트 2세[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이스탄불 개칭, 1453),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진출] 셀림 1세[맘루크 왕조 정복(메카·메디나 보호권 장악, 1517), 술탄·칼리프제도 확립] 슬레이만 1세[재위 1520 ~ 1566, 헝가리 정복, 빈 포위 공격과 실패(1529), 바그다드 점령(1533), 프 레베자 전투 승리(동지중해의 제해권 장악, 1538), 법령 정비와 법전 편찬(입법자)] 셀림 2세[레판토 해전 패배 → 지중해 제해권 상실, 1571]
통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티마르 제도[군정관·기병에게 토지에 대한 징세권(티마르) 부여] 밀레트 제도(인두세 납부 조건으로 이교도의 종교 공동체 인정), 데브시르메 제도(크리스토그도 소년 징집), 예니체리(술탄 친위 부대) 육성, 시파히(기갑 군단)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톱카프 궁전, 술탄이마니예 사원(1557), 슬레이만 사원, 술탄 아흐메드 사원(블루 모스크), 튀르크 궁정 문학 발달, 세밀화 유행



24 이슬람의 팽창	
맘루크 왕조 (1250 ~ 1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집트와 시리아 일대 통치, 몽골군 격퇴(메카·메디나 보호) 오스만 튀르크에 멸망(셀림 1세, 1517)
티무르 왕조 (1370 ~ 15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티무르[재위 1370 ~ 1405, 몽골 제국의 부활 표방, 인도의 델리 술탄 왕조 침공, 앙카라 전투 승리 (⇔ 오스만, 1402), 명 원정] 동서 무역을 통해 번영(수도 사마르칸트), 튀르크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 융합, 세밀화, 천문학 발달 튀르크 계통 우즈베크인에게 멸망
사파비 왕조 (1501 ~ 17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스마일 1세[재위 1501 ~ 1524, 이란 지역 중심 건국(타브리즈), 페르시아 제국의 계승 표방, 시아 파 이슬람교(국교), 군주 칭호 '샤' 사용] 아바스 1세[재위 1588 ~ 1629, 이스파한 천도(1597), 군사력 강화, 비단 산업의 국유화, 크리스토프 포교 허용, 이맘 모스크 건설] 수니파 국가인 오스만 제국과 대립, 아프간족의 침입으로 멸망



25 근대화, 민족 운동	
오스만 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의 독립과 이집트의 자치 허용(1829), 영국·러시아 등 강대국의 압박 • 탄지마트[술탄 압둘 메지트 1세(재위 1839 ~ 1861), 장미의 방 칙령, 1839 ~ 1876] • 미드하트 헌법 공포[미드하트 파샤 주도, 입헌군주제, 종교의 자유, = 오스만 제국 헌법, 1876] • 러시아·튀르크 전쟁(1877 ~ 1878)으로 개혁 중단 → 술탄 압둘 하미드 2세의 헌법 정지 • 청년 튀르크 당(1889 ~ 1922)의 입헌 혁명 : 무장 봉기를 통해 권력 장악(1908), 1876년 헌법 부활, 입헌 정치 실시, 근대화 정책 추진, 극단적 튀르크 민족주의(제국 내 다른 민족의 반발)
아라비아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하브 운동 : 무함마드 이븐 압둘 와하브(1703 ~ 1792) 주도, 이슬람 순화 운동(‘『쿠란』으로 돌아가라’) : 아랍 민족의식 강화, 제1차 사우디 왕국 건설(1774 ~ 1818)
이란 (카자르 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와 영국의 경쟁에 휩쓸려 많은 영토와 이권 상실 • 나세르 알 딘 샤[재위 1848 ~ 1896, 영국에 담배 전매 독점권 부여(1890)] • 아프가니[담배 이권 수호 운동, 영국 담배 불매 운동(1891), 담배 독점권 회수] • 입헌 혁명[국민 의회 수립, 입헌 군주제 헌법 제정(1906), 1905 ~ 1908] • 영국과 러시아의 분할 협정(1912), 반(半)식민지 상태로 전락
이집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맘루크들의 권력 투쟁, 종교 지도자들의 봉기로 총독 쿠르시드 파샤 무력화 • 무함마드 알리(1769 ~ 1849) : 태수 임명(오스만 제국 술탄의 승인, 1805), 와하브 왕국 정복(1818), 자치 획득(1829) • 프랑스 레쎹스의 수에즈 운하 개설 특허 획득[From 사이드 파샤(재위 1854 ~ 1863)] • 수에즈 운하 개통(1869) → 영국의 운하 경영권 차지(1875) → 내정 간섭 강화 • 아라비 파샤(1841 ~ 1911) :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 건설 주장’, 혁명 운동(1881 ~ 1882) : 헌법 제정과 의회 선거 요구, 영국의 진압으로 실패 • 영국의 보호국(1882) ⇨ 독립(1922) ⇨ 수에즈 운하 국유화 선언(나세르, 1956)

26 일본의 고대 국가	
야요이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륙과 한반도에서 벼농사 기술과 청동기·철기 전파, 여러 소국의 등장 • 3세기 경 30여 소국의 연합체 형성(야마타이국이 가장 강성)
야마토 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통일 국가(4세기 경), 전방후원분 축조(4 ~ 6세기), 불교 전래(552) • 쇼토쿠 태자[섭정(593 ~ 622), 중앙 집권 체제 강화, 아스카 문화 발달, 호류 지 창건(607)] • 견수사(600 ~), 견당사 파견(630 ~)
다이카 개신 (6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토쿠 태자 사후 소가 씨 가문의 권력 독점 • 나카노오에 황자 주도, 당의 율령 체제 도입, 소가 씨 세력 제거 시도 • 국호 일본, 천황의 칭호 사용 시작(7세기 말)
나라 시대 (710 ~ 7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이조쿄 건설(장안성 모방), 나라 천도, 도다이샤 창건(745), 도다이샤 대불전·불상(752) • 『일본서기』·『고사기』, 『만엽집(詩歌集)』, 견당사·견신라사 파견
헤이안 시대 (794 ~ 1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이안쿄(교토) 천도, 군주권 약화, 귀족·호족의 독자 세력 형성, 무사 계층 등장 • 국풍 문화 발달 : 견당사 폐지(894), 가나 문자, 와카(和歌), 모노가타리(이야기책, 『겐지 이야기』), 침전양식(주택), 소쿠타이(고유 관복)

오늘도 역사를 합시다!!

27 일본의 막부	
가마쿠라 막부 (1185 ~ 1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쇼군(정이대장군) 책봉(1192), 주종관계 형성(쇼군 ~ 고케닌) • 여·원 연합군의 침입 격퇴(1274·1281) 이후 쇠퇴
무로마치 막부 (1336 ~ 15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카가 다카우지, 무로마치(교토) • 명과 조공·책봉 관계 성립 → 감할 무역 전개(1404 ~ 1547) • 오닌의 난(1467 ~ 1477) ⇨ 전국 시대(1467 ~ 1590) : 다이묘의 경쟁, 지방민이 왜구로 변모, 조총(1543)과 크리스티교(1549) 전래 •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 시대 통일(1590) ⇨ 정한론과 조선 침략(1592)
에도 막부 (1603 ~ 18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 ~ 1616), 에도 • 막번(幕藩) 체제, 산킨고타이 제도[무가제법도(1615) 기반, 쇼군의 다이묘 통제, 1635 ~] • 주인장 발급(1604 ~ 1635), 크리스티교 금교령(1612) • 나가사키 데지마 건설(포르투갈, 1636) ⇨ 포르투갈 상인의 입항 금지령(1639) ⇨ 네덜란드 상인의 데지마 상관 이주(1641) • 조선 통신사 입국(1607 ~ 1811), 난학[= 란가쿠, 『해체신서』(스기타 겐파쿠, 1774)] • 가부나카마(동업 조합), 조닌 문화(가부키·우키요에), 국학 운동(→ 존왕양이 운동)

28 일본의 근대	
개항	1853 • 흑선, 페리 제독의 함포 외교
	1854 • 미·일 화친 조약 (시모다·하코다테 등 2개 항구 개방, 최혜국 조항, 영사 주재 허가)
	1858 • 미·일 수호통상 조약 (가나가와·나가사키·니카타·효고 등 4개 항구 추가 개방, 영사재판권 인정, 협정관세)
	1866 • 사쓰마번과 조슈번의 비밀 군사 동맹 체결 ⇨ 존왕양이(尊王攘夷) 운동 전개
대정봉환	1867 •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국가 통치권을 덴노(무쓰히토)에게 양도(10월)
왕정복고의 대호령	1868 • 사쓰마번과 조슈번 동맹군이 교토의 궁정 장악 ⇨ 천황 중심의 신정부 수립 선포(1월)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top: 5px;"> 사쓰마번과 조슈번이 동맹을 체결하고 막부에 반기를 들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막부는 천황에게 통치권을 반납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이를 막부의 술책으로 간주한 사쓰마번과 조슈번 동맹군은 교토의 궁정을 장악하고 천황의 이름으로 ‘왕정복고의 대호령’을 발표하였다. </div>
메이지 유신 (1868 ~ 1912)	개혁 • 에도 → 도쿄(1868) → 천도(1869), 폐번치현 (1871) • 지조(地租) 개정, 정부 주도의 상공업 육성, 근대적 공장 설립 • 신분제 폐지 (사민평등), 의무교육 도입(1872), 징병제 실시 (1873), 도쿄 대학 설립(1877) • 이와쿠라 사절단 파견 (1871 ~ 1873), 서양 각국에 유학생 파견
	반발 • 자유 민권 운동 (1874 ~) : 이타가키 다이스케 주도로 『민선의원설립건백서』 제출, 의회 설립과 헌법 제정 주장 : 일본 제국 헌법 공포(1889) , 제국 의회 개설(1890) , 교육칙어 반포(1890)
	팽창정책 • 타이완 출병(1874), 운요호 사건(1875)과 조선 개항(1876), 류큐 병합 (오키나와 현, 1879) • 청·일 전쟁 (1894 ~ 1895) ⇨ 시모노세키 조약 (1895) ⇨ 삼국간섭 (러·독·프, 1895) : 최초 식민지 타이완 획득, 라오동 반도 반환 • 러·일 전쟁 (1904 ~ 1905) ⇨ 포츠머스 강화 조약 (1905) ⇨ 을사늑약(1905)
전체주의	군국주의 • 만주 사변(1931) ⇨ 만주국 수립(1932) ⇨ 국제연맹 탈퇴(1933) ⇨ 중·일 전쟁(1937) ⇨ 제2차 세계 대전의 추축국(1939) ⇨ 태평양 전쟁 도발 (진주만 기습, 1941)

29 인도의 통일 왕조

<p>마우리아 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렉산드로스 원정군의 인더스 유역 침공 → 통일 자극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북인도 통일, 왕조 개창, 수도 파탈리푸트라, 기원전 317 ~) 아소카 왕(재위 기원전 270 ~ 기원전 230) : 칼링가 정복,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륙 대부분 통일, 석주 건립, 불교 귀의(상좌부 불교 장려, 불경 결집, 스투파 제작), 불교 포교단 파견(시암·실론)
<p>쿠산 왕조 (30 ~ 27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란계 쿠산 족의 건국, 서북부 지역 푸르샤푸라 중심, 후한 ~ 파르티아를 연결하는 교역로 장악 카니슈카 왕(재위 128 ~ 151) : 북인도 ~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영토 확보, 대승 불교, 산스크리트어 경전 완성 간다라 양식(인도 문화 + 헬레니즘 문화, 불상 제작)
<p>굽타 왕조 (320 ~ 5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찬드라굽타 1세(재위 320 ~ 335, 북인도 재통일, 파탈리푸트라) 찬드라굽타 2세(재위 380 ~ 415, 전성기, 북인도 전역 통일, 학문과 예술 적극 장려)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접경, 에프탈의 침입으로 멸망(550) 인도 고전 문화의 황금기 : 힌두교 성립(브라만교 + 불교 + 고유 신앙, 브라흐마·비슈누·시바·라마, 『마누 법전』) → 왕의 후원 : 산스크리트 문학(『사쿤탈라』·『메가두타』, 『마하바라타』·『라마야나』) : 굽타 양식(간다라 양식의 인도 고유화, 아잔타 석굴 사원과 불상) 오리엔트 천문학 수용, 월식·지구 구형·자전 인식, 숫자 0의 개념과 10진법, 아라비아 숫자에 영향



30 인도의 이슬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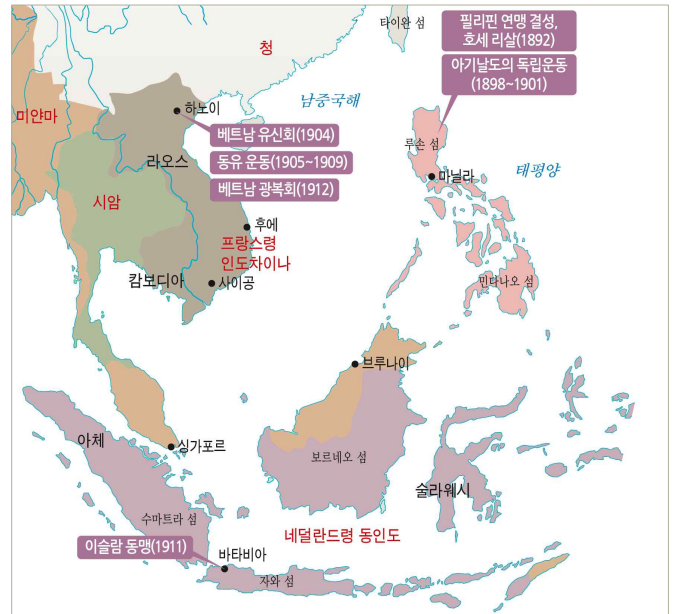
<p>이슬람 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세기경부터 서북부 지역 진출 가즈니 왕조(962 ~ 1186) : 수도 가즈니(아프가니스탄 중동부), 북인도의 펀자브 지역 차지 : 힌두교 사원 공격(마흐무드), 페르시아·튀르크·이슬람 문화의 융합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 5px 0;"> <p>가즈니의 왕 마흐무드가 이끄는 군대가 소나트라에 있는 힌두교 사원을 공격하여 신상을 빼앗았다. 그들이 공격한 사원 안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신상들이 많았고, 사원 외부에도 보석 박힌 베일이 걸려져 있었다. 사원에서 발견된 것들은 모두 가즈니로 가져왔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르(구르) 왕조(1187 ~ 1215) : 구르(아프가니스탄 동부 지방) 중심, 인도 내륙으로 세력 확장(1190년 경), 델리 장악(1192) : 불교, 힌두교 사원 파괴 델리 술탄 왕조 시대(1205 ~ 1526) : 아이바크 왕조 ⇨ 할지 왕조 ⇨ 투글루크 왕조 ⇨ 사이이드 왕조 ⇨ 로디 왕조 : 수도 델리, 벵골과 카슈미르 지방이 인도 영토로 편입 : 지즈야(인두세)를 납부하면 다른 종교의 신앙 인정 → 이슬람교로 개종 증가 : 쿠트브 미나르 건립, 우르두어 성립, 인도·이슬람 건축 양식 등장
---------------	--

<p>31 무굴 제국</p>	<p>성립과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부르(재위 1526 ~ 1530) : 티무르의 후손, 술탄이만 1세의 지원, 북인도 진출, 파니파트 전투(이브라힘 로디 격퇴, 1525), 건국(델리, 1526) • 아크바르(재위 1556 ~ 1605) : 수라트 침공(1573), 데칸 고원 이남을 제외한 인도 대부분 통일, 중앙 집권 체제 확립, 지즈야 폐지,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융합 도모(힌두교도의 관리 등용, 토착 힌두 세력과 혼인 정책) • 샤자한(재위 1627 ~ 1658) : 타지마할 묘당 축조(아그라, 1631 ~ 1653) • 아우랑제브(재위 1658 ~ 1707) : 데칸 고원을 넘어 남인도까지 진출, 지즈야 부활, 이슬람 우대 정책 추진, 라지푸트족의 반발, 비비 까 마크바라 건축(1678) • 북부 펀자브 지방의 시크교도의 저항(고빈드 싱의 지도), 마라타 동맹의 반란(1720 ~ 1818) <p>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양 무역 주도(면직물·견직물·향신료 등 수출 → 영국 산업 혁명의 계기) <p>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융합 • 시크교 : 나나크 창시, 유일신, 카스트제의 신분 차별 반대, 남성들의 성씨로 싱 사용, 황금 사원(암리차르) • 페르시아어(공용어), 우르드어(일상어) • 건축 양식(힌두 + 이슬람 + 페르시아 양식), 무굴 회화
-----------------	---



<p>32 인도의 근대</p>	<p>민족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시 전투(영국 ⇄ 프랑스·벵골 연합군, 1757) ⇨ 영국 승리(벵골 지방 징세권 획득, 1765) ⇨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대립 조장, 그리스도교로의 개종 강요 ⇨ 인도 통치법 제정(1773) •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람 모한 로이 주도, 1828) : 종교 운동(전통 신앙의 순수한 교리로 회귀) → 사회 개혁 운동(우상 숭배 배격, 신분 차별) • 세포이 항쟁(1857 ~ 1859) : 세포이(페르시아어로 병사)의 종교적 반발, 락 슈미 바이의 저항(델리 점령, 북인도 장악) : 바하두르 샤 2세 폐위, 인도 통치 개선법(1858), 동인도 회사 해체(1876), 영국령 인도 제국(1877) • 인도 국민회의의 활동 : 영국의 지원으로 결성(뭄바이, 1885) → 초기 영국의 인도 지배에 협조 : 벵골 분할령(1905) ⇨ 콜카타 대회(틸라크, 스와라지·스와데시·보이콧·국민교육 진흥의 강령 채택, 1906) • 전 인도 이슬람교도 연맹 결성(영국의 지원, 1906) → 반영 운동 전개(인도 국민회의의 지원) • 벵골 분할령 철회(명목상 인도인의 자치 허용, 1911) • 자치권 허용을 조건으로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영국에 협조 ⇨ 롤러법 제정(1919) ⇨ 롤러법 폐지와 완전한 자치 요구(간디) ⇨ 인도 독립 동맹 결성(네루, 1928·1929) ⇨ 소금 행진(간디, 1930) • 신인도 통치법(군사·외교를 제외한 자치 인정, 1935) • 인도와 동·서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1947)
------------------	--

33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앙코르 톰(대왕도), 앙코르 와트 건립(12C 크메르 제국, 힌두 사원 → 불교 사원) • 크메르 루주(Khmer Rouge(1967), 폴 포트 정권(1975 ~ 1979), 킬링필드]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우옌 왕조(1801 ~ 1945), 청·프 전쟁(1884 ~ 1885), 함응이 황제의 근왕 조칙(1885) • 판보이쩌우[베트남 유신회(1904), 동유 운동(1905), 『월남망국사』(1905), 베트남 광복회(1912)] • 판쩌우찐[통킹 의숙(하노이, 사립학교, 1907), 문맹퇴치와 근대 사상 보급을 위한 노력]
미얀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령 인도 제국에 병합(1886)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므라카 왕국[15C, 이슬람 왕조, 중계 무역, 포르투갈에 정복(1511) → 네덜란드(1641)] • 말레이 연방(영국, 1895)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로부두르 사원[8C 중엽 샤일렌드라 왕조(650 ~ 856), 대승 불교 사원] •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1602), 자와 전쟁(1825 ~ 1830), 네덜란드령 동인도 건설(1904) • 카르티니(1879 ~ 1904), 부디 우토모 결성(1908), 이슬람 동맹 결성(1912)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1837 ~) ⇨ 미국·에스파냐 전쟁(1898) ⇨ 미국의 식민 지배 • 호세 리살['나에게 손대지 마라'](1886), 『마지막 이별』(1896), 필리핀 연맹 조직(1892), 에스파냐 인과 동등한 대우 요구] • 아기날도[미국·에스파냐 전쟁에서 미국 지지, 필리핀 공화국 선포(1899), 미국에 대항·체포(1901)]
시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짜끄리 왕조(차오프라야 짜끄리, 방콕 왕조, 1782 ~) : 라마 5세(쭈탈롱꼰)의 근대적 개혁 • 동진하는 영국과 서진하는 프랑스의 완충 역할 자처 → 독립 유지



34	라틴아메리카		
마야 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카탄 반도, 치첸이트사, 피라미드형 신전 건축, 달력·그림 문자 사용, 0과 20진법 		
아스테카 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중앙 고원, 테노치티틀란, 에스파냐 코르테스의 침략(1521), 피라미드형 신전 건축 		
잉카 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데스 고원, 쿠스코, 마추픽추, 에스파냐 피사로의 침략(1533) • 키푸(결승) 문자, 태양 숭배, 신전 건축, 신정 정치, 잉카의 길(도로망), 계단식 경역 		
독립 운동	아이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의 지배, 투생 루베르튀르(검은 스파르타쿠스), 아이티 공화국 수립(1804) 	
	크리오요	먼로 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불간섭 원칙 천명(1823)
		시몬 볼리바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방자, 콜롬비아·베네수엘라·볼리비아 해방
멕시코 혁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폴레옹 3세의 지원으로 막시밀리안 1세의 황제 즉위(1864) → 저항군의 반발(1867) 		